

# '당고머리' '일촌' 인사...추억 꺼내놓는 스타들

(머리카락을 동그렇게 말아 올린 2000년대 헤어스타일)

전소민·이시연 “그 감성 안다”  
2000년대 사진들 올리며 공유  
최강희는 아예 홈페이지 주소 공개  
“딱 맞춤 감성...자주 왕래하자”



배우 전소민, 프로게이머 이윤열, 배우 최강희(왼쪽부터) 등 스타들이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추억의 SNS 사이월드로 추억을 고집어 올리고 있다.

“그 시절 그 감성, 그리웠어요!”  
2000년대 추억의 SNS인 사이월드가 돌아왔다. 재정비에 돌입한 지 2년 6개월만인 2일 재개장하면서 누리꾼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당시 감성을 기억하는 스타들도 SNS를 통해 미니홈피에 잠들어있던 옛 사진을 공개하면서 ‘추억 찾기’ 열풍이 새롭게 불고 있다.

### ●최강희·전소민도 “추억사 오븐”

사이월드의 운영사 사이월드제트는 24일 현재까지 옛 미니홈피의 절반이 넘는 이용자 사진첩을 복구했다. 5월 초 90% 이상의 이용자 사진첩이 업로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스타들도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흑역사 짤(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우 전소민은 머리카락을 동그렇게 말아 올린 ‘당고 머리’ 등 2000년대 유행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시연도 “대딩(대학생) 시절”이라며 미니홈피에 담겨있던 2006년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최강희는 아예 SNS에 미니홈피 주소를 올려두었다. 그는 “미니홈피는 혼자 볼 수 있고, 그걸 봐주는 일촌들이 있고, (그들의)사진과 글을 볼 수 있었다”며 “그

래서 내게는 딱 맞춤 감성이었다. 앞으로 자주 왕래하자”고 사이월드 팔로어를 뜻하는 ‘일촌’에게 인사했다. 그룹 원타임 출신 송백경,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 등도 미니홈피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유행 아이템도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그룹 2AM의 조권은 SNS를 통해 “사이월드만큼 무서운 유물”이라며 슬라이드형 휴대폰의 화면을 캡처해 팬들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유, 박명인, 지드래곤, 원더걸스 안소희 등 스타들의 ‘하두

리’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 2000년 초반 화상채팅 사이트 하두리의 웹캠으로 찍은 ‘저화질 셀카’로, 누리꾼 사이에 ‘추억의 대표주자’로 통한다.

### ●너도나도 ‘추억 찾기’

스타들의 움직임에 누리꾼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미니홈피’는 트위터가 22일 발표한 4월 IT 핫 키워드 3위에 올랐다. 트위터 측은 “많은 사람들이 미니홈피, 사진첩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사이월드가 재개장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약 4만5000건의 트윗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이월드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13만여 건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은 사이월드를 접해보지 않은 10~20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사이월드제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존 이용자뿐 아니라 10대와 20대 초반 이용자들도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예능 한 편당 평균 68.2회 영어자막

최근 3년간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어 자막과 신조어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발간한 ‘2021 방송언어 조사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예능 프로그램 한 편당 평균 68.2회의 영어 자막이 영문 또는 한글로 노출됐다. ‘머쓱했’, ‘○○동질’, ‘떡○○’ 등 신조어가 전파를 탔다. 2019년에 비해 20건 넘게 증가했다. 또한 신조어 사용은 2020년부터 1년 반 동안 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SNS 등 인터넷에서 발명하는 신조어를 그대로 방송에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외국어를 혼용해서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승준, 이번주 내 입국 비자 재소송 1심선고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재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1심 소송의 선고기일을 28일 진행한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냈다.

#### BTS, 한국 최대 역대 조회수 뮤비 보유한 그룹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중 최대 역대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그룹이 됐다. 지난해 5월 28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버터’의 리믹스 음원 ‘버터(하터 리믹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24일 오전 10시 46분경 1억 건을 넘었다. 역대 조회수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는 총 37개로 한국 가수 중 최대 기록이다. ‘버터(하터 리믹스)’는 원곡을 하우스 베이스 기반의 일렉트로 댄스 뮤직으로 재해석한 버전이다. ‘버터’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스위터, 쿨러 리믹스 등 여러 가지 스페셜 리믹스 버전으로 발매됐다.

#### 구치소 수용자와 대화 녹음 ‘그알’ 무죄 확정

구치소 수용자와 대화를 녹음·녹화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전화금융사기 사건 취재 중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씨를 만나려고 C씨 지인인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가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행위가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용자에 줄 목적으로 술, 담배 등을 허가 없이 들고 간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기살인’ 국회 시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공기살인’이 국회 시사회를 열기로 확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시사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재수 의원의 추진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해 절대 잊지 말아야 참사의 아픔과 심각성을 되짚어 예정이다. 22일 개봉한 ‘공기살인’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노브레싱’을 만든 조용선 감독이 연출했으며 김상경, 이선민, 윤경호, 서영희 등이 출연한다.



가수 싸이가 성시경, 타블로, 지코, 화사 등 화려한 피쳐링 군단과 함께 정규 9집으로 돌아온다. 사진은 수지와 함께 한 신곡 ‘셀피’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

사진제공 | 피네이션

## 이번엔 ‘싸다9’!...5년 만에 돌아오는 ‘월드스타’ 싸이

댄스·발라드 등 담은 9집 29일 발표  
타블로 지코 화사 등 ‘초호화 피쳐링’  
스타와 스타들의 만남...시너지 기대

‘월드스타’ 싸이가 돌아온다.  
싸이는 29일 정규 9집을 발표하고 오랜 만에 무대에 나선다. 2017년 5월 발표한 정규 8집 ‘4X2=8’ 이후 5년 만이다.  
2집 ‘싸2’, 3집 ‘3마이’, 4집 ‘싸집’, 5집 ‘P SYTYFIVE’, 6집 ‘싸이6甲’, 7집 ‘칠집싸이다’ 등 앨범마다 독특한 작명으로 눈길을 끈 싸

이는 이번에는 ‘싸다9’로 했다. ‘싸이의 다재로운 9집’이라는 뜻을 담은 자신만의 유패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또 성시경, 크러쉬, 헤이즈, 타블로, 수지, 지코, 화사, 제시 등 ‘초호화 피쳐링 군단’의 지원사격을 받아 눈길을 끈다. 이들이 각기 스타 파워만으로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휩쓸어 온 만큼 싸이와 만들어낸 시너지에도 호기심이 쏠린다. 이들과 손잡고 댄스,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12곡을 담았다.  
싸이는 2012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강남스타일’ 1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싸이는 2012년 11월 ‘강남스타일’로 케이(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주간 2위를 기록했다. 그는 2013년 콘서트에서 “2002년 ‘챔피언’ 이후 ‘챔피언’을 이기는 노래를 만드는 데 정확히 10년 걸렸다. 2012년 ‘강남스타일’이 나왔다”며 “어쩌면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를 다시 만나는 건 2022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해 유튜브가 표시할

수 있는 수치의 한계를 넘긴 최초의 동영상으로 기록됐다. 유튜브는 조회수 집계 한도를 늘려 ‘강남스타일’은 24일 현재 43억9600만 뷰를 넘어섰다.  
한편 ‘공연형 가수’로 불리는 싸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폐차’와 함께 팬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관객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도 개최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등 야외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개봉 미뤘던 한국영화 60여편...배급사 개봉일 눈치싸움

송강호·이병헌 3편, 현빈 2편 등  
톱스타급 배우들 출연작 수두룩  
같은시기 공개면 ‘출혈경쟁’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극장가가 2년여 만에 정상 운영되면서 한국영화가 잇달아 개봉 시기 조율에 나서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개봉을 미뤘던 영화가 60여편에 달해 이를 언제 선보일지 각 배급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박찬욱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6월 개봉하며 포문을 연다.

이어 2014년 1761만 명을 모은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 용의 출현’이 7월 개봉해 여름 방학 극장 선전작이 나선다. 또 다른 기대작으로 꼽혀왔지만 감염병 사태로 개봉을 연기해온 작품들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의 ‘영웅’, ‘신과함께’ 시리즈를 만든 김용화 감독의 ‘더문’, ‘베테랑’ 류승완 감독의 ‘밀수’, ‘암살’,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태극기 휘날리며’ 장재규 감독의 ‘보스톤 1947’ 등이다.  
톱스타급 배우들의 출연작도 개봉 대기 중이다. 송강호는 ‘브로커’를 포함해 ‘비상

선언’, ‘1승’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선언’에 함께 출연한 이병헌도 ‘콘크리트 유도도파와 ‘승부’를 포함해 세 편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아인과 현빈도 각각 두 편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소지섭의 스크린 복귀작 ‘자백’, 송중기 주연 ‘보고타’, 이정재와 정우성의 연출 데뷔작 ‘헌트’와 ‘보호자’도 있다.  
이에 각 배급사들의 고민이 커진다. 그동안 기대작은 대체로 관객이 몰리는 여름·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 크리스마스 등 극장 성수기에 개봉해왔지만 올해 이처럼 적지 않은 작품이 포진한 상황에서는 선불리 공개 시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

릿 많은 작품이 엇비슷한 시기에 몰리는 ‘출혈경쟁’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고려해야 한다. 5월 개봉하는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톰 크루즈 주연 ‘탑건: 매버릭’을 포함해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주라기월드: 도미니언’, ‘어벤저스’ 등과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24일 “어쩔 수 없이 올해 개봉을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 중인 작품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하지만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화의 낡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어떤 영화와 경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개봉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